

한국 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괜찮아”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0%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보다 1.2%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43.2%, '하지 말아야 한다'는 3.6%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5.8%가, 여자는 44.3%만이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 별로는 10대(13~19세)는 29.1%, 60대(60세 이상)는 71.6%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결혼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 (28.7%), '고용 불안정' (14.6%)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았



▲ 한국 국민의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결혼 자금 부족 다음 이유로 '고용 상태의 불안정' (16.6%)을,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5.0%)라고 답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5.2%였다. 그간 동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증가 추세를 보여왔지만 6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자는 34.7%로 직전 조사인 2020년보다 4.0%포인트 증가했다. 이 항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8.5%포인트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인구 약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전국 집값, 13년8개월만의 최대 낙폭 기록

한국 아파트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5일 '세계일보'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0.81%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전국(-0.77%)과 수도권(-1.02%) 주택 종합 매매가도 전월보다 낙폭이 확대되며 역시 2008년 12월(-0.78%, -1.17%) 이후 가장 많이 내렸다.

아파트로만 보면, 서울은 지난달 1.24% 내리며 2008년 12월(-1.73%)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각각 1.20%, 1.52%

씩 떨어지며 2003년 12월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년 가까운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전세시장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0.96% 하락하며 전월(-0.45%) 대비 낙폭이 2배 수준으로 커졌다. 인천(-1.36%)과 경기(-1.39%)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 수도권 기준 전셋값도 각각 -0.88%, -1.24% 내렸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반전세·월세 계약 전환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 인천의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경기에서도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수원·파주시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취업난, 인플레 청년들 '경제 고통' 심각



▲ 한국 청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큰 경제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취업난과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 수준이 다른 연령대 대비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전경련은 이날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를 세대별로 산출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5.1로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23.4)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산출한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각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연령대별 물가상승률을 합산한 수치다.

이 수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1년(25.4)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은 물가 때문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연 5.2%)은 2019년 물가상승률(0.5%)의 약 10배 수준이다. 작년(2.3%)과 비교해도 두 배에 달한다.

전경련은 청년들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1~3분기 평균 물가상승률 7.3%), 교통(11.7%),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5.9%) 등의 물가가 특히 많이 오른 점과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도 이들의 '경제적 고통'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실업률(19.9%)은 작년(23.1%)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30대 9.5%, 40대 7.9%, 50대 8.7%, 60대 11.3% 등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또 주거비와 등록금 등으로 청년층 부채 비율이 높은 가운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복선)/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